

드레츠키의 의식이론 - 그 의의와 난점

신 상 규*

이 논문은 현상적 의식(경험)에 대한 드레츠키의 표상적 입장의 기본전략과 그 의의가 무엇인지를 해명한다. 드레츠키의 이론에 따르면, 경험의 현상적 특징은 그 표상적 성격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표상론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의식의 설명적 간극의 문제에 대해 한 가지 답변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표상론에 따르면, 감각질은 경험 자체에 귀속되는 의식상태의 특성이 아니라, 대상이 갖는 것으로 경험이 표상하는 성질이다. 이러한 입장을 취할 경우에 설명적 간극의 문제는, 어떻게 두뇌 상태가 현상적 속성을 지닐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두뇌 사건이 외부 대상을 특정한 현상적 속성을 갖는 것으로 표상할 수 있는가의 질문으로 치환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 논문은 드레츠키의 현상적 외재론을 비판한다. 드레츠키는 감각적 경험의 내용에 대해서도 명제태도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외재주의를 옹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론을 옹호하는 드레츠키의 논변을 비판하며, 그가 확립한 것은 경험의 기술 혹은 개념화에 대한 외재론이지, 경험자체의 외재론이 아님을 주장한다.

【주요어】 드레츠키, 경험, 현상적 의식, 감각질, 표상론, 현상적 외재론, 심성내용

.....

본 논문의 목적은 표상적(representational) 의식이론, 그 중에서도 특히 드레츠키의 의식 이론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해명코자 하는 것이다. 의식이란 말은 매우 다의적인 표현이다. 우리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의미에서

* 숙명여대 교수

혹은 반성적인 자기-의식이라는 뜻으로 '의식'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단순히 깨어있음을 뜻하는 말로서 '의식'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철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 감각질(*qualia*)의 문제로 불리는 우리의 의식 경험에 동반하는 주관적 느낌을 해명하는 문제이다. 즉, 의식의 중심 문제는 “무엇과 같은 것(*what it is like*)”의 측면에 해당하는 경험의 주관적 특성이 어떻게 물리적 세계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지를 해명하는 현상적 의식(*phenomenal consciousness*)의 문제이다.¹⁾

드레츠키는 이러한 감각질의 문제를 표상의 문제로 접근하고자 한다. 나는 드레츠키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현상적 의식의 해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의 1절에서는 현상적 감각질에 대한 드레츠키의 기본 주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이론의 성격과 의의가 무엇인지를 간략히 해명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현상적 의식을 해명함에 있어서 이 이론의 핵심적 전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에 대한 단적인 평가는 유보하고자 한다. 표상적 의식이론은 아직 많은 부분이 불명료하게 남아있고, 논의 수준이 정교해짐에 따라 다양한 변용과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2절에서는 현상적인 주관적 경험의 내용에 대한 드레츠키의 외재론적 주장을 비판할 것이다. 드레츠키는 개념이나 명제태도의 내용뿐 아니라, 현상적인 경험의 내용에 대해서도 외재론의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그의 입장을 현상적 외재론이라 부를 수 있는데, 드레츠키는 현상적 의식에 대한 표상적 접근과 현상적 외재론 사이에 상당한 근진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드레츠키의 현상적 외재론은 상당히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현상적 의식에 대한 표상이론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²⁾ 현상적 외재론을 거부한다고 해서, 표상론

1) 현상적 의식의 문제는 감각질을 해명하는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상적 의식', '감각질', '의식경험'을 거의 대체 가능한 표현으로 사용할 것이며, 때로는 줄여서 '경험'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용어법대환 논의는 Chalmers (1998), p.11 를 참조.

2) 이 논문에서 비판하고 있는 현상적 외재론은 드레츠키가 주장하는 매우 강한 형태의 현상적 외재론이다. 이보다 온건한 현상적 외재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I

현상적 의식을 논의하는 드레츠키의 책에는 마음의 자연화(Naturalizing the Mind)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그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드레츠키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현상적 의식을 포함한 마음 전반에 대한 자연화이다. 이는 비단 드레츠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심리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20여 년간 심리철학의 주된 논의는 지향성이나 의식과 같은 마음 혹은 정신의 특성을 물리주의적 세계관에 통합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의례적인 접근은 심성현상을 믿음이나 욕구와 같은 명제 태도와 감각질을 특징으로 하는 현상적 의식(경험)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제기하는 철학적 문제가 각기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가령 다음과 같은 로젠탈의 설명을 살펴보자.

심성적 속성에는 두 가지 넓은 범주가 있다. 종종 명제적 태도로 불리는 사유나 욕구와 같은 심성상태는 'that'절에 의해 기술될 수 있는 내용을 갖는다. 가령, 누군가가 비가 올 것이다(that it will rain)라는 사유나 욕구를 가질 수 있다. 이들 상태들은 지향적 속성 혹은 지향성을 갖는다고 말해진다. 통중이나 감각인상과 같은 감각은 지향적 내용을 결여하며 대신에 다양한 종류의 질적인 성질을 갖는다.³⁾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감각질을 그 특성으로 하는 감각상태는 지향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명제적 심성내용을 갖는 지향적 상태와는 구분된다. 믿음 등의 명제 태도에 대한 해명은 그것들이 갖는 관함(aboutness)의 특성(지향적 특성)을 물리주의적 틀 속에서 해명하는 자연화

가를 유보한다.

3) Rosenthal, "Identity Theories", p.349

기획으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현상적 의식을 해명하는 일은 그것을 특징 짓는 감각질(qualia), 즉 “무엇과 같은 것(what it is like)”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많은 철학자들은 명제태도가 갖는 지향성의 자연화에 대하여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다. 지금까지 인과관계나 공변적 정보관계 혹은 생물학적 기능 등의 개념을 통하여 지향성을 환원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물론 이런 시도들에 난점이 없는 것은 아니며, 대다수의 철학자들이 이런 시도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많은 철학자들은 지향성을 자연적으로 해명하는데 어떤 원리적인 난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상적 의식의 문제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많은 철학자들은 현상적 의식을 해명하는 일에는 어떤 원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차머스는 의식의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를 구분한다. 우리는 신경생리학적 연구를 통하여, 의식 경험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신경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가령, A라는 신경에 B라는 자극이 주어지면, 간지러움과 같은 특정한 내적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해 낼 수 있다. 그런데 차머스에 따르면, 이는 두뇌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이다. 문제는 이런 지식들이 의식적 상태와 연관된 주관적 느낌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식의 ‘어려운 문제’이다. ‘어려운 문제’는 특정의 신경 물리적 작용이 일어났을 때, 왜 주관적인 경험이 동반되어야 하는가를 해명하는 문제이다.

어떤 유기체들이 의식의 주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시스템이 어떻게 의식의 주체일 수 있는가는 곤혹스러운 문제이다. 우리의 인지체계가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인 정보처리에 종사할 때, 왜 우리는 짙은 파랑의 시각적 경험 혹은 미들 C와 같은 청각적인 경험을 갖는 것일까? 어떤 심성적 이미지를 갖거나 어떤 감정을 경험할 때, 왜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어떤 무엇이 있어야(there is something it is like) 하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경험이 물리적인 기초에서 생겨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동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왜 그리고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좋은 설명이 없다. 도대체 왜 물리적인 과

정이 풍부한 내적 삶 자체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일까? 만일 어떤 문제가 의식의 유일한 문제(the problem)의 자격을 갖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 문제이다.⁴⁾

만일 “쉬운 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이라면, 물리학이나 신경생리학을 포함한 자연과학은 의식현상과 관련된 인과 메커니즘에 대하여 과학적(자연적) 설명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의식 현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왜 그러한 물리적, 인과적 작용으로부터 감각질과 같은 현상적인 느낌이 생겨나는가의 부분이다. 우리의 두뇌가 어떤 파장의 빛을 처리할 때, 왜 우리는 하필이면 파랑에 해당하는 색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 더 나아가 우리는 도대체 의식적 경험이란 것 자체를 왜 하게 되는 것일까? 과학이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설명을 원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어 보인다. 레바인(Levine)은 현상적 의식에 대한 물리주의적 설명이 갖는 이런 난점에 대하여 “설명적 간극(explanatory gap)”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⁵⁾

현상적 의식의 자연화에 대한 드레츠키의 전략은, 의식의 문제를 표상의 문제로 치환시키자는 것이다. 지향성이 심성의 특징인 한에 있어서, 물리적인 것과 감각질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보다는 지향성과 감각질 사이의 거리가 훨씬 가까울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지향성이 자연화될 수 있다면, 감각질을 곧장 물리적 차원으로 환원하기보다 지향성으로 환원하는 것이 현상적 의식의 자연화에 대한 보다 유망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드레츠키는 지향성의 자연화 논의로 잘 알려져 있는 철학자이다.⁶⁾ 드레츠키는 표상이 갖는 지향적 관계를 법칙적 공변에 입각한 모종의 정보적 관계로 환원시키고자 한다. 어떤 사태나 사건, 혹은 속성의 예화(A)가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다른 사태나 사건, 속성의 예화(B)가 일어난다고 하자(법칙적 공변관계의 성립). 이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A가 B에 대한 (자

4) Chalmers, "Facing Up to the Problem of Consciousness", p.11

5) Levine, "Materialism and Qualia: The Explanatory Gap"

6) 지향성의 자연화에 대한 드레츠키의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신상규, 「표시와 기능」을 참조.

연적)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관계만으로 표상의 해명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표상(지향성)의 해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표상의 가능성에 대한 해명인데, 표상의 올바른 발생과 잘못된 발생의 구분을 공변적 표시(indication) 관계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드레츠키는 오표상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기능의 개념에 호소한다. 가령 유기체 내부의 두뇌상태와 그 환경적 조건 사이에 모종의 공변관계가 성립하고, 그 환경적 조건의 변화에 대한 정보가 해당 유기체의 생존이나 번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자. 이때 자연선택의 과정은 그러한 두뇌상태가 그러한 환경 조건 하에서 그 유기체에게 필요한 행위를 촉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 두뇌 상태를 징발(recruit)한다. 이때 그 두뇌상태는 그 환경적 조건(사건이나 특정 속성의 예화)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획득하게 된다. 두뇌 상태가 이러한 정보전달의 기능을 가질 때, 그것은 비로소 표상이 된다.

드레츠키는 “모든 심성적 사실은 표상적 사실”이며, “모든 표상적 사실은 정보적 기능에 관한 사실임을 주장한다.”⁷⁾ 우리의 지각 경험 혹은 현상적 의식도 심성적 사실인 한에 있어서 표상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드레츠키는 경험의 현상적 의식이 갖는 특징(현상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경험의 표상적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현상성(phenomenality)을 지향성으로 환원시켜 이해하겠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지각 경험의 현상적 특징은 그것의 표상적 성질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된다.

지각적 믿음이 표상적이라는 것은 오늘날 큰 논란거리가 아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지각적 경험 또한 표상적이라는 생각이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지각경험이 표상적일 뿐 아니라, 그것의 현상적 특징-그러한 경험을 갖는 것이 무엇과 같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성질-도 대상이 갖는 것으로 경험이 표상하는 성질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여기서 내가 검토(옹호)하고자 하는 논제이다.⁸⁾

7) Dretske, *Naturalizing the Mind*, p. xiii

8) Dretske, "Experience as Representation", p.67

이 같은 드레츠키의 주장을 의식의 표상논제(representational thesis)라 부를 수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현상적 경험에 관한 심성적 사실 조차도, 표상의 정보적 기능에 관한 물리적 사실로 환원된다. 브렌타노는 모든 심성현상이 지향적 특징을 가지며, 동시에 지향성은 물리적 현상과 구분되는 심성현상 고유의 특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후자의 주장은, 심성현상과 달리 물리적 현상은 지향적 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소위 환원 불가능성 논제이다. 물론 드레츠키와 같은 물리적 자연주의자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의 주장을 편다. 그런데 브렌타노의 첫 번째 주장, 모든 심성현상이 지향적 특징을 갖는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물론 명제태도에 속하는 심성상태의 본질적 특징은 지향성이다. 하지만 현상적 의식경험의 경우, 모든 현상적 상태가 지향적 성질을 갖는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게다가, 현상적 경험 상태의 본질적 특성은 주관적이면서 현상적인 감각질에 있다고 간주되었다.⁹⁾ 그런 점에서, 현상적 의식경험을 표상의 일종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드레츠키의 태도는, 지향성을 심성의 징표로 간주하는 브렌타노의 첫 번째 주장을 재확립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¹⁰⁾

감각질과 같은 현상적 의식의 질적 특성을, 심성상태가 이른바 표상으로 서 갖는 지향적 성질을 통하여 설명하려는 입장을 '(현상적) 의식에 대한 표상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¹¹⁾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주장이 근대철학의 고전적인 표상론의 주장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고전적 표상론에 따르면, 지각 경험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관념”, “인상”, “감각자료”와 같은 심성적 대상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9) 의식의 표상이론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통증이나 오르가즘, 혹은 우울함과 같은 정서적 상태들은 표상적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표상론자들은 이들 현상도 모두 표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통증은 우리 신체 부위의 외상이나 교란, 감정은 그 주체의 일반적인 상태, 오르가즘은 특정 신체영역의 물리적인 변화를 표상한다고 생각한다.

10) 지향적 성질을 모든 심성상태의 공통된 본성이라고 생각했던 브렌타노가, 지각 경험을 철저히 물리적인 차원의 현상으로 이해했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11) 이러한 표상이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는 드레츠키, 타이, 라이칸 등이다.

외부 대상에 대한 경험은 외부의 대상을 표상하는(represent) 혹은 외부의 대상과 닮아 있는 심성적 이미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외부 대상의 성질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과정이다. 가령 우리가 빨간 토마토를 지각할 경우, 우리가 직접 파악하는 것은 토마토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내적인 빨간 심상이다. 이때 빨강이라는 성질을 직접적으로 지니는 것은 감각자료와 같은 내적인 심성상태이다. 고전적 표상론은 특히 환각이나 지각 상의 착각을 잘 설명할 수 있다. 특징의 형태나 색깔에 대한 환각을 경험할 때, 비록 그 성질을 갖는 대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고전적 표상론에 따르면 감각자료가 바로 그 인식의 대상이다. 그런데 환각의 경우나 올바른 지각의 경우 모두에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내용은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길은, 정상적인 지각의 경우조차도 우리가 직접 지각하는 것은 외부 대상이 아니라 경험 내적인 감각자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드레츠키는 고전적 표상론이 의식의 작용과 대상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표상의 수단(vehicle)과 내용(content)을 구분함으로써 이를 설명해보자. 표상의 수단은 표상작용을 하는 상태나 사건이다. 우리 두뇌 속의 신경상태는 표상의 수단에 해당한다. 우리가 보통 표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두뇌상태를 가리킨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표상의 수단을 이용하여 혹은 이러한 표상작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파악한다. 표상의 내용은 표상의 수단이 그러하다고 표상하는 조건이나 상황을 나타낸다. 그런데 표상의 내용은 표상의 작용을 통하여 외부의 대상이 갖는다고 생각되는 지향적 속성이지만, 표상 수단에 귀속될 수 있는 표상 자체의 속성이 아니다. 그런데, 고전적 표상론은 의식의 대상을 일종의 심성적 대상인 감각자료라고 봄으로써, 의식의 작용에 해당하는 것을 의식의 대상이라고 간주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드레츠키에 따르면 경험의 의식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외부의 대상이다. 빨강의 경험에 해당하는 의식적 상태는 외부 대상을 빨간 것으로 표상하는 생물학적인 기능적 상태이다. 지각적 경험에서 우리가 파악하는 혹은 의식하는(aware) 성질, 즉 빨강의 감각적 성질

은 감각자료와 같은 심성적 대상이 갖는 경험 내재적(intrinsic) 특징이 아니라, 경험적 상태가 외부의 대상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지향적 성질이다. 즉, 경험의 질적 특성인 감각질은 **대상이 갖는 것으로 경험이 표상하는 성질(properties the experience represents things as having)**이다. 경험이 참된 경우라면, 대상은 우리의 경험이 표상하는 그러한 성질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 가령 내가 빨간 육면체에 대하여 올바른 지각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 대상은 실제로 빨강과 육면체임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의 현상적 특질로 파악하는 성질, 즉 감각질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개의 경우 경험된 대상의 성질이며, 관찰적 속성에 해당하는 것은 보통의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성질들이다.

여기서 감각질이라는 말에 대한 약간의 해명을 덧붙여 보자. 드레츠키가 감각질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감각질 실재론자들이 사용하는 감각질, 즉 감각자료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드레츠키에 따르면, 감각질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지각이나 경험에 대한 잘못된 이론의 소산일 뿐이다. 감각질이라고 할 때, 드레츠키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심적 대상이 아니라, 외부의 대상이 갖는 것으로 경험이 표상하는 성질이다. 말하자면, 이는 우리의 의식경험이 직접 파악하는 심성적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대상을 경험하는 표상의 작용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이는 경험의 작용 방식이며, 우리는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대상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 대상에 대한 경험에서처럼, 우리가 대상이 갖는 성질을 의식(파악)하는 경우라면, 감각질 자체가 우리 의식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때의 감각질은 대상이 갖는 것으로 표상되는 성질이다. 그런데 경험이 갖는 성질로서 감각질이 우리 의식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즉 우리의 일차적인 경험은 대상을 향하고 있지만, 그러한 경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대상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가**를 문제 삼게 된다. 그런데, 나중에도 논의되었지만, 우리의 경험에 대한 반성적 접근은 개념이 결부된 믿음이나 판단의 형태를 띠

게 된다. 이때 우리는 경험의 현상적 성질인 감각질을 질적인 성질로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질에 대한 경험은 대상에 대한 일차적 경험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난다’라는 개념적 판단의 형태로 사실-의식(aware that P)하게 된다.¹²⁾ 즉 우리가 반성적으로 감각질을 파악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대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대상을 표상하는 방식 혹은 대상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식에 대한 개념적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경험이 갖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적 특징은 경험이 대상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속성이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두뇌 상태로서의 경험 혹은 표상 자체는 그것에 귀속시킬 수 있는 어떠한 현상적 특징도 갖지 않는다. 아무런 현상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경험 자체는 투명(transparent)하다. 가령, 빨강 육면체를 보는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에 해당하는 심성적 두뇌 상태는 표상의 수단이며, 그것 자체는 빨강지도 않고 육면체도 아니다. 빨강과 육면체는 표상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상 수단(경험) 자체가 그러한 성질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가 타인의 머릿속을 들여다봄으로써, 그 사람이 경험하는 성질(표상의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때 우리가 들여다보는(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의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사건이며, 이는 표상의 수단 혹은 작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우리의 의식 경험뿐 아니라, 표상 일반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가령 문자(표상의 수단)로 이루어진 텍스트가 그것이 서술하는 대상이 갖는 성질(표상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동시

12) 『마음의 자연화(Naturalizing the Mind)』에서 드레츠키는 이러한 내성을 환치된 지각(displaced perception)의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 환치된 지각은 어떤 대상을 지각함으로써, 다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이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지각함으로써, 우리가 특정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자기에 관한 지식을 얻는다. 이때의 지각의 대상은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경험의 대상이다.”(p.44) 즉,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대상을 통하여, 나의 경험을 내성적으로 알게 된다. 여기서 그가 지각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내성적 지식은 인지적이고 개념적인 표상이다.

에, 만일 우리가 그 텍스트가 작성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텍스트만을 보고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도리는 없다. 경험의 경우에, 우리는 경험이 작성된 언어 즉 두뇌의 언어가 어떻게 작성(인코딩)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 따라서 두뇌의 작용만을 보고서, 그것이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를 알 수는 없다. 드레츠키는 경험의 내용에 대한 일인칭적 접근과 삼인칭적 접근의 이러한 비대칭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유물론적 이론이 표상적 이론이라고 주장한다.¹³⁾

드레츠키의 입장은 지각에 대한 상식적 실재론의 입장을 지지한다. 즉,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직접 알게 되는 것은, 감각자료와 같은 어떤 내적인 심성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대상이나 사건이다.¹⁴⁾ 그런데 지각적 실재론이 갖는 가장 일반적인 난점은 환각의 경우를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드레츠키는 지각적 경험도 표상의 한 종류인 한에 있어서, 이를 표상이 갖는 지향성에 입각하여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표상은 꼭 그것의 내용을 만족시키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산타클로스에 관한 믿음이나 이야기가 내용을 지니기 위해서, 산타클로스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드레츠키는 지각적 경험의 경우도 그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지각이나 환각적 경험이 표상하는 속성은, 만일 그런 대상이 존재한다면, 그 대상에 관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말하자면 경험이 표상하는 속성은 두뇌상태가 외부의 대상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지향적 내용이다. 환각은 오표상의 경우에 불과하므로,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감각자료와 같은 내적 대상을 가정할 필요는 없다.¹⁵⁾

지금까지 우리는 드레츠키의 표상적 이론이 현상적 의식(경험)의 질적 특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드레츠키 식의 이러한 전략은 과연 의식의 '어려운 문제' 혹은 '설명적 간극'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공하고 있는가? 여기서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13) Dretske, "Experience as Representation", p. 71

14) Dretske, *ibid.*, p. 73

15) Dretske, *ibid.*, p. 74

간단한 평가를 내려 보도록 하자. 드레츠키는 현상적 의식에 대한 표상적 설명이 설명적 간극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¹⁶⁾ 즉, 표상 이론은 “어떻게 축축이 젖은 회색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화학적 사건이 생생한 현상적 속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드레츠키는 ‘또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곤혹스러운 간극을 넓힘으로써 의식에 대한 설명적 간극을 메울 수 있다’고 대답한다. 말하자면 현상적 의식을 표상의 문제로 접근함으로써, 의식에 대한 원래의 설명적 간극의 문제를 표상에 대한 설명적 간극의 문제로 치환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설명적 문제는 “어떻게 축축이 젖은 회색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화학적 사건이 현상적 속성을 표상하게 되는가?”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러한 설명전략은 원래 제기된 의식의 설명적 간극 문제를 잘못 제기된 가짜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표상으로서의 경험 자체, 즉 표상의 수단(vehicle)으로서의 두뇌상태는 아무런 현상적 특징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뇌의 전기화학적 사건이 어떻게 생생한 현상적 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표상론의 관점에 설 경우에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어떻게 두뇌의 전기 화학적 사건이 경험의 외부 대상을 특정한 현상적 속성을 갖는 것으로 표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질문이 묻고 있는 내용은, 표상시스템인 우리 두뇌가 외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인코딩 혹은 측정하는(measuring) 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념적 표상이 외부 대상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인코딩한다면, 비개념적 표상인 감각 경험적 표상은 외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인코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감각질로 지칭되는 경험의 현상적 특질은 바로 두뇌가 외부 대상에 대한 정보를 포착하고 전달, 매개하는 아날로그적 정보 전송 방식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아날로그적 정보 측정 및 전송의 본성 및 그런 방식의 정보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두뇌의 작동방식이나 구조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16) Dretske, *ibid.*, pp. 71-72

로 엔지니어링의 문제이며 신경과학을 비롯한 자연과학이 답해야 할 문제로서, 찰머스가 말하는 이른바 의식의 쉬운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표상적 이론은 의식의 어려운 문제를 의식의 쉬운 문제로 변형시키는 방안을 제공한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현상적 의식의 해명을 가로막는 원리적 난관의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

II

그런데 드레츠키는 의식에 대한 표상적 이론에서 현상적 경험에 대한 외재론으로 나아간다. 외재주의자들은 믿음과 같은 명제태도의 지향적 상태를 외부적 환경과 관련된 일종의 관계적 사실로 파악한다. 이들에 따르면 지향적인 표상 상태는 우리의 두뇌나 신체의 상태에 수반하지 않으며, 이들 상태에 대한 수반의 기초 성질은 외부 대상과 같은 환경적 조건을 포함한다. 드레츠키와 같이 발생론적 기능 개념을 통하여 표상을 해명하고자 하는 이들은, 여기에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까지도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철학자들은 믿음과 같은 인지적 상태와 관련하여 외재주의를 수용한다. 그런데 드레츠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외재론을 현상적 경험을 포함하는 모든 심성적 사실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표상적 논제는 마음에 대한 외재주의적 이론이다. 이는 심성적 사실을 표상적 사실과 동일시하며, 비록 표상은 머릿속에 있다고 해도, 표상을 표상으로 만들어주는 사실들, 즉 그것들을 심성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사실은 머리 바깥에 있다.¹⁷⁾

그러나 현상적 경험의 경우, 외재주의는 명제태도의 경우보다 훨씬 더 비직관적으로 보인다. 가령 프레드와 그 도플갱어 쌍둥이 프레드가 앞에

17) Dretske, *Naturalizing the Mind*, p. 124

있는 동일한 형태의 물웅덩이를 보고 있다고 가정하자. 외재주의에 따르면, 이때 이들이 갖게 되는 지각적 믿음은 서로 다르다. 프레드는 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쌍둥이 프레드는 XYZ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들이 서로 다른 '물'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드레츠키는 현상적 경험의 내용에 대해서도 외재주의(현상적 외재론)적 입장을 취한다. 그 결과, 그는 이들이 갖게 되는 지각적 경험의 내용, 즉 그 질적 특성인 감각질조차도 서로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가 갖고 있는 직관은 이러한 외재론적 주장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우리의 직관은, 설령 이들이 서로 다른 믿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들이 경험하는 지각의 감각 내용(즉, 그 현상적 특징)은 서로 동일해야 한다는 내재론적 결론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각 경험의 현상적 특성은 우리의 신체나 두뇌 상태와 같은 국지적인 물리적 상태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수반을 받아들인다면, 물리적으로 동일한 존재는 동일한 감각 경험을 하여야 한다.

드레츠키는 이러한 내재론적 직관의 상당 부분이 앞서 살펴본 고전적 표상론과 같은 경험에 대한 잘못된 분석에 입각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만일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이론을 거부하는 동시에 개념이나 명제에 대한 외재론을 수용할 수 있다면, 현상적 의식 경험이 표상적 사실인 한에 있어서 그 경험의 내용에 대해서도 외재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명제적 내용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표상의 경우에도 그것들을 구분시켜주는 것은 그것들이 무엇에 관한 그림이나 사진인가에 달려있다. 똑 같이 생긴 두 사람 A와 B가 있다고 하자. 이들을 찍은 똑 같은 두 장의 사진이 있다고 할 때, 이들 사진을 분류하고 개별화시켜주는 것은 그것들이 누구에 관한 사진인가에 달려있다. 드레츠키는 현상적 경험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의식경험의 본성이 표상적이라면, 그 현상적 본성은 대상이 갖는다고 경험이 표상하는 성질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대상들이 갖는 성질을 따라서 경험을 분류하고 구분하여야 한다.

하나의 경험을 다른 경험과 구분하여 개별화시켜주는 성질은 ... 이러한 성질에 대한 경험이 머무르고 있는 사람 속 어디에도 있지 않다. (p.144)

우리가 믿음을 그것들이 무엇에 관한 믿음인가에 의해 구분하고 동일화 하듯이 ... 우리는 경험도 그것들이 무엇에 관한 경험인가를 통하여 구분하고 동일화하여야 한다. (p.145)¹⁸⁾

따라서 특정의 경험을 개별화시켜주는 속성(혹은 그러한 경험을 한다는 것이 무엇과 같은 것인가를 정의하는 특성)은,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이 갖는 공적으로 접근가능한 객관적 성질이며, 그것은 단지 경험자의 신체나 두뇌의 물리적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외재론적 주장은, 감각내용이 신체나 두뇌 상태에 수반해야 한다는 내재론적 직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물리적 복제자인 프레드와 쌍둥이 프레드가 똑 같은 형태의 물을 보고 있지만, 그들이 갖는 현상적 경험은 서로 달라야 한다는 드레츠키의 논변을 살펴보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경험을 통하여 대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적 드러남(appearance)의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가 '~을 의식한다'고 말할 때, 의식의 두 가지 의미를 각기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모종의 믿음 혹은 믿음적 성향과 결부되어 있는 의미의 '~로 보인다'이다. 이를 믿음과 결부되어있다는(doxastic) 의미에서 '보인다_d'로 표기하자. 드레츠키는 이를 사실-의식(consciousness of facts)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¹⁹⁾ 사실-의식에는 기본적으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판단, 즉 '대상 k가 어떤 속성 F를 갖고 있다'는 류의 판단이 개입된다. 따라서 이는 개념의 개입 및 사용과 결부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의식은 자신이 의식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동반하므로, 언어적인 행동(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보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원초적인 의미의 의식경험은 현상적인(phenomenal) 의미에서 '~로 보인다'이다. 이를 '보인다_p'로 표기하자. 드레츠키는 이를 대상-

18) Dretske, *Naturalizing the Mind*

19) Dretske, "Conscious Experience", p.113

의식(consciousness of things)이란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적인 의미의 의식(경험)은 인지적인 개념이나 믿음으로부터 독립적이다. 대상에 대한 현상적인 의식_p은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판단이나 이해가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우리는 어떤 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도 그 대상을 경험할 수 있다. 어떤 속성 F를 경험하기 위하여, 꼭 F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과 시계바늘이 움직인다고 보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대상의 의식의 본다_p이고, 후자는 사실의식의 본다_d이다. 개념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유아나 동물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경험적 의식이 바로 현상적인 의미의 의식_p이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의 현상적 특성이라고 부르는 감각질도 일차적으로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보인다_p'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드레츠키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경험_p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_p을 하고 있는지를 꼭 파악(의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목한다.²⁰⁾ 스스로가 어떤 경험_p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외부대상의 성질에 대해 접근(의식)하는 것과는 달리, 현상적 성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대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의식 상태를 경험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식 상태에 대해서는 개념의 개입을 거쳐야만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개념적 작용이 없이도 눈앞에 있는 물웅덩이를 경험하고 의식할 수 있다. 그러나 물웅덩이가 우리의 경험에 드러나는 방식, 즉 물웅덩이에 대한 경험의 현상적 성질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물처럼 보인다_p'라는 형태의 믿음이나 판단을 통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만일 누군가가 F라는 개념을 결여하고 있다면, 비록 그가 F적인(F-ish) 경험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즉, 어떤

20) 이러한 사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Conscious Experience" p.128 참조. 한 가지 간단한 예는 7개의 손가락을 보았지만, 8개의 손가락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현상적으로 내가 의식한 것은 분명 7개의 손가락에 대한 경험일 것이다. 그러나 나의 현상적 경험에 대한 나의 보고는 8개의 손가락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부주의(inattention)이나 감각적인 과부하(sensory overload)의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k 가 F 처럼 보인다_p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현상적 경험이 F 적인 성질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즉, 개념이 결여되면, 그 경험에 대한 보고나 기술, 판단이 불가능하다. 드레츠키는 이를 칸트의 주장에 빗대어, “개념이 없이는 직관(경험)에 대하여 맹목적인 상태가 된다(without concepts we are blind to our intuition(experience))”라고 표현한다.

이제 프레드와 쌍둥이 프레드에게로 다시 돌아가 보자.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완전한 복제자인 이 둘이 정확히 동일한 각도와 위치에서 똑 같이 생긴 물웅덩이를 보고 있다고 가정하자. 드레츠키는 비록 이 둘이 동일한 웅덩이를 경험하고 있지만, 각자의 경험에 대하여 서로 생각하는 바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레드는 자신의 경험(물웅덩이가 보이는_p 방식)이 ‘물(water)을 보는_p 경험과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에 반해 쌍둥이 프레드는 ‘물(XYZ)을 보는_p 경험과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물(water)이 보이는_p 방식과 물(XYZ)이 보이는 방식_p은 여전히 동일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반론이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드레츠키는 지금 자신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물웅덩이가 어떻게 보이느냐_p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물웅덩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믿음, 물웅덩이가 보이는_p 방식(즉, 현상적 경험)에 대한 반성적 접근, 즉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대응한다. 따라서 설령 동일한 현상적 경험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들은 스스로의 현상적 경험에 대해서 상이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드레츠키의 논변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빨간 대상을 보고, 빨강의 색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빨강’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경험의 현상적 특징(경험이 대상을 빨강으로 표상하고 있음)을 파악하는 내성적 지식은 외부의 대상을 경험하는 것과 다르다. 이는 어떤 내부의 사실을 직접 들여다봄으로써(경험함으로써) 알게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이미 경험된 성질을 개념화하는 간접적인 과정이며, 빨간(reddish) 종류의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빨강’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프레드와 쌍둥이 프레드는 자신들이 경험하는 대상을 분류하고 동일화하는 데에 필요한 개념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이 파악하

는 경험은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

드레츠키는 이러한 결론이,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경험의 현상적 성질에 대해서 이들이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공유한다고 가정된 경험의 측면을 Q라고 해보자. 프레드와 쌍둥이 프레드가 이것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통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개념은 외재적으로 개별화되므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프레드가 파악한 프레드의 경험과 쌍둥이 프레드가 파악한 쌍둥이 프레드의 경험은 서로 달라야 한다. 그러한 지식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들 지식은 서로 완전히 대칭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그 중의 하나를 Q에 대한 접근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하며, 따라서 이들 모두가 Q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Q에 대하여 내성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마치 그들의 경험이 Q가 아닌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제 드레츠키는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만일 위의 논의가 올바른 것이라면, 그러한 성질 Q를 두뇌상태에 국지적으로 수반하는 내재적인 성질로 간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로 공유하는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알(접근할) 수 없다는 주장은, 감각적 경험의 질적 상태는 본질적으로 알 수 있어야(knowable)한다는 입장과도 양립불가능하다. 공유는 하지만 서로 알 수 없는 감각질이 있다는 것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그들이 동일한 감각질을 공유하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드레츠키는 생각한다. 즉 물웅덩이는 프레드와 쌍둥이 프레드에게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드레츠키는 자신의 이러한 논변이 현상적 외재론의 참을 결정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일 현상적 성질에 대한 내재론이 경험에 대한 잘못된 이론에 입각해 있다면, 우리가 굳이 경험의 성질이라는 것을 신체나 두뇌의 국지적인 물리적 상태에 수반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개념적인 차원의 외재론을 받아들인다고 하자. 드레츠키는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올바른 개념을 결여한 경우에 왜 Q에 접근할 수 없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경험 자체도 외재적으로 근거 지워진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레드와 쌍둥이 프레드가

Q에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념을 개별화시켜주는 외적인 관계에서 적절한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가령, 블록의 '전도된 지구(inverted earth)' 논변에 나오는 것처럼, 프레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쌍둥이 지구로 옮겨졌고, 일정한 의미론적 적응 기간을 거친 다음에 개념의 변화를 겪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들은 비로소 동일한 개념을 소유하게 되며, 공통적인 경험 Q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드레츠키는 이러한 논의들이 최소한 현상적 외재론의 개연성, 즉 그것이 참일 가능성 정도는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드레츠키의 이러한 논의가 현상적 경험의 외재론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먼저, 이상의 사유실험을 통하여 드레츠키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경험 자체가 아니라 경험에 대한 반성적 접근, 즉 경험에 대한 개념화로서의 우리의 믿음이다. 하지만 이로부터 드레츠키가 이끌어내고 싶어 하는 결론은 프레드와 쌍둥이 프레드의 경험 혹은 그 현상적 특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드레츠키는 경험의 현상적 성질에 대한 우리의 믿음 혹은 의식이 외재적으로 개별화된다는 주장에서, 경험 자체가 외재적으로 개별화된다는 주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하지만, 드레츠키가 입증한 것은 프레드나 쌍둥이 프레드가 서로의 경험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주장이지, 이들 경험의 현상적 특징 자체(즉 대상이 대상-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방식)가 다르다는 주장은 아니다.

드레츠키의 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경험과 경험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의 구분을 도입해보자. 경험의 질적인 특성을 언급할 때 우리는 대개 관계적이거나 인과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묘사한다. '유황 냄새', '삼겹살 맛' 등이 그러하다. 경험에 대한 접근이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자신의 경험에 접근하고 개념화하는 가장 용이한 방안은 어쩌면 이러한 관계적 기술을 이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특히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는 더욱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관계적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지칭되는 현상 자체가 반드시 관계적이거나 인과적이라

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질량을 측정하는 단위인 킬로그램을 생각해 보자. 킬로그램은 관계적, 인과적으로 정의된다. 즉, 그것에 대한 표상이나 측정은 관계적/외재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가리키는 성질인 질량 자체는 관계적인 성질이 아니라 내재적인 성질이다.²¹⁾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험에 접근하기 위하여 관계적인 기술이나 개념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통하여 지시되는 것의 본성은 외재적이 아니라 내재적이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드레츠키의 논의는, 경험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재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의 사용을 통해서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경험의 기술 혹은 개념화에 대한 외재론을 지지할 뿐이며, 경험 자체에 관한 외재론을 지지하지 않는다. 현상적 경험 자체에 대한 내재론은 경험에 대한 우리 믿음의 외재론과 양립가능하다.

외재적 개념을 통해서만 경험에 접근할 수 있다는 드레츠키의 전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드레츠키는 경험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필요로 하며, 프레드와 쌍둥이 프레드의 개념은 서로 외재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험은 서로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경험에 접근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념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가령 라이칸 같은 이는 우리의 경험에 대한 내성적 접근은 일종의 내적 지각과 같은 경험의 형태를 띤다고 주장한다.²²⁾ 만일 우리의 경험에 대해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접근하기 위하여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고차경험이론의 입장도 많은 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단은 경험에 대한 접근이 개념적이어야 한다는 드레츠키의 주장을 인정해 보자.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프레드와 쌍둥이 프레드가 자신들의 경험을 다르게 파악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드레츠키가 들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프레드는 ‘k(물웅덩이)’가 물(water)처럼 보인다_p’라고 생각할 것이고 쌍둥이 프레드는 ‘k는 물

21) Kim, "Dretske's Qualia Externalism", p.164

22) Lycan (1996). 이러한 입장에 대한 드레츠키의 비판은 "Conscious Experience" in Dretske (2000)을 참조.

(XYZ; twater)처럼 보인다_p’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각자의 경험을 포착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은 물이라는 개념이다. 그런데 물은 외재적으로 그 의미가 고정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문제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반성적 접근은 꼭 이러한 외재적 개념을 통해서만 서술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경험에 대하여 비외재적으로 규정되는 개념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드레츠키 식의 주장이 적용되는 외재적 경험의 범위는 오직 외재적 개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로 국한될 것이다.

물론 드레츠키는 모든 개념은 외재론적일 수밖에 없다고 대응할 것이다. 앞서 잠깐 지적하였듯이, 드레츠키는 표상의 지향적 성격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외부 대상과의 관계뿐 아니라 역사적 기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상당히 포괄적인 형태의 외재론자이다. 그러나 개념이 외재론적으로 규정된다고 해서, 프레드의 개념과 그에 대응하는 쌍둥이 프레드의 개념이 모두 서로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들의 개념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물’과 같이 고정지시적 성격을 갖는 자연종 명사와 관련된 경우이다. 드레츠키의 예에서, 프레드의 경험에 대한 믿음은 ‘k는 y처럼 보인다_p(k looks_p like y)’와 같은 방식으로 물이라는 외재적 개념을 통하여 관계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비고정적인 성격을 갖는 개념을 사용하여 비관계적인 방식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김재권은 그러한 비관계적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들의 예로써 빛나는(shiny), ‘물같은(watery)’ 등의 표현을 들고 있다.²³⁾ 이때 물같은이라는 개념은 보통의 물이 가지고 있는 ‘맑은’, ‘투명한’, ‘액체’ 등과 같은 비관계적인 현상적 속성들의 묶음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자. 우리는 드레츠키를 따라서 이러한 비고정적인 현상적 개념들도 기본적으로는 포괄적인 의미의 외재적 성격을 갖는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개념이 갖는 외재성이, 물과 같은 고정지시어와는 달리, 프레드와 쌍둥이 프레드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실질적인 의미의 차이로 귀결될 것인지

23) Kim, "Dretske's Qualia Externalism", 161

는 분명하지 않다. 그 외재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물같음(wateriness)과 쌍둥이 물같음(twateriness)은 동일한 개념일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이들 개념이 같은 개념이라면, 우리는 프레드와 쌍둥이 프레드의 경험을 이들 개념을 사용하여 비관계적인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k는 물같이 보인다_p(k looks_p watery)'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²⁴⁾ 이처럼 비관계적인 현상적 속성을 나타내는 개념을 통하여 경험에 접근할 수 있다면, 프레드와 쌍둥이 프레드는 자신들이 공유하는 경험 Q에 접근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드레츠키의 현상적 외재론은 포괄적 외재론이 아니라, 특정의 경험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국지적 외재론이 되고 만다.

이상에서 살펴 본 드레츠키의 입장은 나름의 일관성은 있지만,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외재론을 주장하고 있다. 의식에 대한 표상적 입장과 개념적인 외재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과연 경험에 대해서도 드레츠키와 같이 현상적 외재론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는 드레츠키보다 훨씬 온건한 형태의 현상적 외재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경험을 서로 동일한 종류의 경험으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류적 차원의 개별화에만 외재론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드레츠키의 외재론은 이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그는 대상-의식적인 차원에서 대상이 우리에게 보이는_p 방식도 외재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프레드와 쌍둥이 프레드의 경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분류적 차원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경험의 구성적 성질, 즉 대상이 주관적으로 드러나는_p 방식에 있어서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쉽게 인정하기 힘든 주장이다.

나는 경험에 대한 표상적 접근이 현상적 의식의 해명에 있어서 상당히 유망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쌍둥이 프레드의 경우에 대한 드레츠키의 현상적 외재론은 상당히 극단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현상적 외재론에 대한 드레츠키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표상논제를 거부할 필

24) 영어와 달리 우리말로는 경험에 대한 관계적 규정과 비관계적 규정의 차이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후자의 '물같이'는 형용사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전자의 '물처럼'은 명사인 '물'과 부사인 '처럼'의 조합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표상논제와 현상적 외재론은 서로 독립적인 주장이다. 가령 우리는 경험의 현상적 특질이 표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념적인 경우와는 달리 경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좁은 내용”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²⁵⁾ 다른 한편으로, 굳이 ‘좁은 내용’까지 들먹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상적 동일함과 표상적 차이는 양립할 수 있다. 현상적 의식에 대한 표상론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현상성이 지향성(표상)에 수반한다는 주장이다. 즉, 표상적 차이가 없다면 어떠한 현상적 차이도 있을 수 없다. 달리 말해서, 현상적 차이는 표상적 차이를 넘어설 수 없다. 역으로, 만일 어떤 현상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면, 표상적 차이 또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수반은 현상성과 표상의 동치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표상적 내용은 다르지만 현상적으로 동일한 경험의 가능성 자체가, 표상논제에 의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드레츠키의 사유실험에 등장하는 프레드와 쌍둥이 프레드의 경우, 그 경험의 표상 내용은 다르지만 이들의 경험이 현상적인 측면에서 동일할 가능성은 여전히 표상논제와 양립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신상규, 「표시와 기능」, 『철학적 분석』 14호, 겨울, 2006.12

Bach, K., "Review Essay: Engineering the Mind",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57, No.2 (1997), pp.459-468.

Biro, J., "Dretske on Phenomenal Externalism", *Philosophical Issues*, Vol. 7, Perception. (1996), pp.171-178.

Charlmers, D. "Facing Up to the Problem of Consciousness", in Shear, J.(ed.), *Explaining Consciousness - The 'Hard Problem'*, MIT (1998)

25) 경험의 현상적 의식에 대한 표상론을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좁은 내용’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는 Rey(1998)가 있다.

- Dretske, F., "Experience as Representation", *Philosophical Issues*, Vol.13, Philosophy of Mind. (2003), pp.67-82.
- Dretske, F., "Conscious Experience", in *Perception, Knowledge and Belief: Selected Essay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Dretske, F., "Phenomenal Externalism or If Meanings Ain't in the Head, Where Are Qualia?", *Philosophical Issues*, Vol. 7, Perception. (1996), pp.143-158.
- Dretske, F., "Reply to Commentators", *Philosophical Issues*, Vol. 7, Perception. (1996), pp.179-183.
- Dretske, F., *Naturalizing the Mind*, MIT Press (1995)
- Dretske, F., *Explaining Behavior: Reasons in a World of Causes*, MIT Press (1988)
- Kim, J., "Dretske's Qualia Externalism", *Philosophical Issues*, Vol. 7, Perception. (1996), pp.159-165.
- McGinn, C., "Missing the Mind: Consciousness in the Swamps", *Nous*, Vol. 31, No.4 (1997), pp.528-537.
- Levine, J., "Materialism and Qualia: The Explanatory Gap",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1983) 64:354-61.
- Lycan, W., *Consciousness and Experience*, MIT Press (1996)
- Neander, K., "The Division of Phenomenal Labor: A Problem for Representational Theories of Consciousness", *Nous*, Vol.32, Supplement: Philosophical Perspectives, 12, Language Mind and Ontology. (1998), pp.411-434
- Rey, G., "A Narrow Representationalist Account of Qualitative Experience", *Nous*, Vol.32, Supplement: Philosophical Perspectives, 12, Language Mind and Ontology. (1998), pp.435-457
- Rosenthal, D., "Identity Theories", in S. Guttenplan (ed.), *A Companion to the Philosophy of Mind*, Blackwell (1994)
- Seager, W., *Theories of Consciousness: An Introduction and Assessment*,

Routledge, (1999)

Tye, M., *Ten Problems of Consciousness: A Representational Theory of the Phenomenal Mind*, MIT Press (1997)

Dretske's Theory of Consciousness - its significance and difficulty

Sangkyu Shin

This paper examines Dretske's attempt to naturalize phenomenal experiences. According to his theory, phenomenal consciousness can be explained in a proper way only through explaining its representational character. The representation theory of consciousness can be thought of as suggesting a way to resolve the 'explanatory gap' problem. It contends that *qualia* are not the properties which can be attributed to an experience itself (a conscious mental state), but the properties which the experience represents things as having. Then, our burden becomes to explain how it is possible for our brain states to represent the external thing as having phenomenal properties,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the one to explain how it is possible for our brain states to possess phenomenal properties.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criticizes Dretske's phenomenal externalism. He tries to defend a strong form of externalism, not only for propositional attitudes, but also for phenomenal experiences. I argue that Dretske succeeds only in establishing the externalism for the description or conceptualization of phenomenal experiences, not for the externalism for phenomenal experiences *per se*.

[Key Words] Dretske, experience, phenomenal consciousness, qualia, representationalism, phenomenal externalism, mental content